제주도 신·재생 에너지 메카 부상

KETI, 169억원 투자 연구기지 건설 ... KAIST도 1000억원 투입 계획

제주도에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신·재생 에너지 종합연구기지가 건설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ETI)이 제주도에 풍력, 태양열, 수소연료전지, 바이오, 해수열 등의 신·재생 에너지 연구기반을 구축하고 실증 및 보급 역할을 수행할 연구기지 건설계획 입안을 제안했다.

에너지기술연구소는 제주시 구좌읍 10만2000여㎡ 부지에 2009-15년 동안 169억원을 투자해 연구시설 3동(대형실험동, 특수창구, 연구동)을 신축한 뒤 2011년에는 연구지원센터와 연구원 숙소 등을 갖출 계획이다.

주요 연구내용은 육·해상의 풍력 원천기반 기술개발 상업화를 비롯해 신·재생 에너지를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열공급 시스템, 해수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해수담수화 시스템, 수소연료전지를 이용한 자동차 기술 및 상업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바이오 연료를 이용한 자동차 시범기술 실증센터 구축, 연료전지와 풍력을 연계한 지역전력 공급시스템 개발 등 모두 9개 분야의 연구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11-13년 3년간 9억원을 투자해 신·재생 에너지 실용화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어서 이 분야의 전문인력 150명이 양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민하 제주도 도시계획담당자는 “2009년 상반기에 착수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청취,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등의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KAIST가 1000억원 가량을 투자해 에너지·환경 연구시설 및 연수원 조성사업을 유치할 예정이어서 2개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제주도는 국내 신·재생 에너지 연구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6>